

파리, 15분 도시계획과 도시시설 활용 방안 발표

유무종

프랑스 도시설계사·건축가,
파트릭 코다 건축사무소 대표

현재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은 많은 세분화를 일으켰다. 한쪽에 행정센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구역이 있다. 파리에서는 특히 라데팡스 지역과 센강 북쪽 19구, 20구에 회사가 많다. 다른 쪽에는 주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상업지가 있다. 대학가도 있다. 이러한 세분화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향하는 새로운 방법에 문제가 된다. 파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방법은 도시에서의 생활 방식과 사용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파리에서 발표한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는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파리의 15분 도시계획 발표

2020년 1월 20일 안 이달고(Ane Hidalgo) 파리시장은 재출마를 선언한 후 열흘째 되는 날 ‘15분 도시’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는 초근접성(hyper proximité)이다. 파리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이내에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인프라를 재편성한 이른바 ‘근접의 도시’다. 이미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을 통해 넓은 보도와 식생을 갖춘 자전거 거리와 보도를 공사하고 있는 파리는 진행 중인 자전거 거리에 맞추어 이번엔 도시의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려 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파리 시내에 자동차를 없애고 모든 시민들이 걸거나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많은 사람이 종종 무시하는 근접성, 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재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성의 문제는 지하철을 타고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 늘 있던 문제다. 15분 도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변 도시자원을 활용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삶의 선택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달고 시장의 도시정책 자문인 파리 11대학 도시설계학 교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가 발표한 15분 도시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시민이 특히 식료품이나 신선한 음식 및 건강관리와 연관된 상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역에 가족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주택을 제공하고,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한다.



파리 ‘15분 도시’ 개념도

©https://annehidalgo2020.com

- 모든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 원격근무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위해 집 근처에 소규모 사무실, 소매 및 접대 시설,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둔다.

15분 도시의 비전은 보통 시장(혹은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의해 설정되며 대중교통 지향 개발 계획, 도시 개발 계획 또는 동등한 토지 이용 계획과 연관지을 수 있다. 이 과정에 포괄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도시의 현실에 기반한 계획과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인프라 활용 방안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자신을 돌보고, 재미있게 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다. 성인 기준으로 15분이면 걸어서 1km를 갈 수 있고, 자전거로는 2.5km 정도를 갈 수 있다. 따라서 파리의 15분 도시는 반경 3km 안에 모든 도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필요로 하는 많은 시설을 한정된 면적 안에 마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전문가와 함께 세운 방법은 ‘한 장소를 여러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이 속한 건축 환경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도시는 건물이나 공공장소 및 기존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용도를 낮과 밤, 주중과 주말,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등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용도를 찾거나 추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파리 각 동네의 중심이 되는 학교와 대학은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열어 놀이터를 이용하고, 캠퍼스 내 잔디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의 용도를 시간에 따라 그 사용자를 달리 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주차공간을 활용해 주말에 식당의 야외 면적을 확보하거나 자전거 차고를 두기도 한다. 영화관을 회의 장소로 전환할 수도 있다. 휴일과 주말에 주요 도로 위에 임시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허가해 더 많은 서비스를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활동적이고 변화한 거리 조성을 위해 모든 건물의 1층에 공적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소매 또는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

파리시는 연간 10억 유로(약 1조 3,5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거리, 광장, 정원을 유지, 보수하고 미화할 계획이다. 5,000명 규모의 새로운 지역 경찰조직을 창설해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치안을 확보하고, 이에 맞추어 대중교통 시스템도 강화한다.

국내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삶의 형태와 거기에 맞는 뉴노멀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 창조적이고 필수적인 도시 사회의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삶의 모습, 속도,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상상하고 제안하고 구축해야 한다. 점점 비대해져 가는 수도권의 물리적 영역과 긴 통근 시간은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도시 거주자들에게 필수적인 도시 사회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도시공간을 사는 현대인에게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관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https://www.bfmtv.com/politique/municipales-a-paris-avec-la-ville-du-quartier-heure-anne-hidalgo-mise-sur-l-hyper-proximite_AV-202001210088.html
- 2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 홈페이지. <http://www.moreno-web.net>
- 3 <https://www.c40knowledgehub.org>

©유무중



주차공간을 활용한 파리의 레스토랑 야외 좌석